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필리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이성순 · 김연홍*

(목원대학교 · 한국산업인력공단)

1. 들어가는 말
2.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개요
3.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설문조사 분석
 - 3.1. 일반적 특성
 - 3.2. 한국어능력 현황
 - 3.3. 한국어능력시험 일반적 현황
4.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발전방안
 - 4.1. 필리핀 내 세종학당 증설
 - 4.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계
 - 4.3. 구술 평가 도입
 - 4.4. 한국 입국 후 한국어교육 지원
 - 4.5. 다양한 부교재 개발
 - 4.6. CBT 시험장 인프라 개선
5. 나가는 말

* 제1저자: 이성순, 교신저자: 김연홍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필리핀에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응시한 외국인근로자 511명 대상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의 발전방안으로서 첫째,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리핀 내 세종학당의 증설이 요구되고 둘째, 한국어능력시험의 효율화를 위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의 연계가 요구되며 셋째, 의사소통과 작업능력 제고를 위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구술시험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입국 후 한국어학습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어교육 지원이 요구되고 다섯째, 한국어 표준교재를 활용한 워크북과 어휘집 등 다양한 자가학습용 부교재 개발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CBT 시험장 일반적 점검 및 듣기시험 평가의 적합성 제고 등 인프라 개선이 요구된다.

【주제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1. 들어가는 말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독일과 중동으로의 인력 송출국이었으나 198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3D 업종 취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1987년 이후 외국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들이 체류 목적과 달리 불법적으로 취업하고 그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의 대두는 외국인력정책을 제고하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외국인력 제도는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연원되어 도입기(1993~2000.4), 갈등기(2000.4~2004.8),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기(2004.8~2007.3), 고용허가제의 발전기(2007.3~현재)를 노정하고 있다(이성순, 2023: 134). 특히,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도 병행기를 거쳐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고 외국국적동포 외의 대상 일반고용허가제, 외국국적동포 대상의 취업관리제는 특례고용허가제로 지칭되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 점이 특징이다.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를 정부가 관장하고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 업종 및 송출국가 선정 등의 정책 결정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선정·도입 절차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 구직자 선발조건·방법·기간, 상호 간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송출국 정부는 한국어 성적 및 경력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한국에 송부¹⁾→표준근로계약 체결→사전취업교육→입국 및 취업교육→사업장배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점에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 선발에 있어 객관적 지표이자 단초가 되는 주요한 평가임을 알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16개국 외국인근로자 대상 실시되는 평가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²⁾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인 2,507,584명으로 총 인구 51,325,329명 대비 4.89%이고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인 522,571명³⁾으로 총 체류 외국인 대비 20.83%를 차지한다.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인 전문인력 72,146명과 단순기능인력 450,425명으로 대부분되는데 단순기능인력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의 외국인인 332,301명⁴⁾으로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522,571명 대비 63.5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어로 전환,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인증 후 구직자명부를 관리함.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라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함.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은 법률 제3506호로 1981.12.31.제정, 1982.1.1. 시행되었고 1991.1.14.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으로 개칭됨.

3) 합법체류 446,689명, 불법체류 75,882명임.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310,825명,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21,476명임.

정책본부, 2024: 48).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연구로서 김명광(2023: 72)은 EPS-TOPIK 시험별 출제 방식이 비공개형에서 공개형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변경되었지만, 이는 한국어능력 신장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 가라기보다는 노동 수요 측면에서 변경되었을 뿐 평가 문항과 표준교재와의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정호진(2013a: 411)은 평가 시행에 따른 경제성, 채점의 용이성 등 실용성이 강조된 나머지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음을 지적하였고, 김유정(2008: 120)은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공인타당도와 예측타당도 측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태은(2023: 1)은 출제문항의 개발과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요구되고 문항의 난이도와 한국어 표준교재의 난이도와 일치 요구됨을 지적하였으며, 이미혜(2016: 480)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이 구직자 명부 작성을 위해 실시되지만 근로자 선발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평가제도의 개편을 제안하였다. 김경국(2022: 65)은 듣기와 쓰기영역의 각 20문항을 25문항으로 확대하고 문장 완성형 쓰기 문항의 추가, 사지선다형에서 오지선다형으로의 변경, 문항 난이도에 따른 배점 부여 등을 제안하였다.

김선정(2015: 20)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표준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었지만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자가 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교재 개발과 의사소통 제고를 위한 부교재 개발이 전제된다고 기술하였다.

정호진(2013b: 122)은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4개국 세종학당 소속의 한국어 교사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하고 한국에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 270명 대상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체계를 구축에 있어 현지 한국어교육 방향성과의 일치가 전제됨을 피력하였고, 전용일·백희정(2019: 249)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118명을 대상 고용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고용허가제의 선발제도에 있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외에 산업별 선발방식의 다양화, 다각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연구는 평가문항 및 교재분석 중

심의 연구이고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세종학당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와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대상 설문조사에 국한될 뿐 외국 현지의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대상의 설문조사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시간적 범위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이고 공간적 범위는 필리핀이며 내용적 범위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한 필리핀 외국인근로자 511명(특별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300명, 일반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211명) 대상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실태조사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및 3개 언어(한국어, 영어, 타갈로그어)로 작성된 설문지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문항은 응시자 일반적 특성(9문항), 한국어능력 현황(4문항), 한국어능력시험 일반적 현황(13문항)으로 총26문항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의 일반적 특성, 한국어능력 현황, 한국어능력시험의 일반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의 발전방안과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입국 후 한국어교육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2.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개요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위해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구직자 선발 기준 지표로서 2005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었다.

동 법 제7조(외국인 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2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

- 5)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 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 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

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동 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제3항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제4항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 구직자 대상 한국어 구사 능력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송출의 투명성과 송출비용의 최소화, 한국어 기초능력 향상, 입국 후 산업재해 예방, 직무능력 향상 등의 기대효과 하에 도입된 점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김명광, 2023: 66).

한국어능력시험은 송출국가별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데 2023년 기준 국가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현황에 따르면 응시자 수는 캄보디아 75,928명, 네팔 69,633명, 방글라데시 49,666명 순으로 응시자가 많음을 알 수 있고 합격률에 있어서는 미얀마 85.1%, 인도네시아 64.2%, 중국 51.8%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국가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국가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현황

(단위: 명, %)

구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응시자	69,633	12,441	7,370	4,753	19,322	49,666	26,484	53,782
합격자	3,734	1,783	2,583	1,352	16,445	20,489	11,385	9,126
합격률	4.9	14.3	35.0	28.4	85.1	41.2	42.9	16.7
구분	우즈베크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응시자	25,683	36,882	2,056	75,928	3,318	33,748	23,490	23,955
합격자	7,922	23,690	1,066	24,020	918	9,303	4,359	6,520
합격률	30.8	64.2	51.8	31.6	27.6	27.5	18.5	27.2

출처: EPS-TOPIK(<https://epstopik.hrdkorea.or.kr>)

의 장과 협의한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는 자,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출국 경력이 없는 자, 출국 제한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고 평가내용은 한국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다.

시험은 읽기와 듣기시험으로 구분되고 시험 시간은 듣기와 쓰기 영역 별 25분으로 총 50분이며 문항 수는 영역별 20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영역의 출제기준은 한국어 능력, 한국문화 이해, 산업안전 및 보건 등의 내용이고 사지선다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듣기 영역의 출제기준은 단어 및 문장의 소리와 표기, 사진이나 그림 등 시각 자료에 대한 설명, 대화, 이야기(산업안전 포함) 등을 녹음하여 응시자들이 청취한 후 내용에 대한 답을 고르는 사지선다형을 채택하고 있다.

영역별 세부영역 및 주요항목은 <표 2>와 같다.

<표 2> 영역별 세부영역 및 주요항목

구분	세부영역	주요항목 ⁶⁾
읽기	· 그림, 사진보고 문장고르기 등 사물·상황 이해평가	· 사물, 상황설명
	· 빈칸 어휘채우기 등 문장 및 어법 사용 능력 평가	· 어휘·어법
	· 교통표지, 안내표지, 산업안전표지 등의 이해평가	· 실용자료, 정보
	· 구인광고, 기계작동법, 일상생활, 문화 등 이해평가	· 독해
듣기	· 한국어 음운과 연음관계, 숫자의 발음 평가	· 소리·표기
	· 시각 자료를 통한 한국어 구사 능력 평가	· 시각자료
	· 실생활의 대화 상황 듣기 후 문제해결 능력평가	· 대화
	· 대화, 이야기 듣기 후 세부정보, 전체맥락 이해평가	· 대화·이야기

출처: EPS-TOPIK(<https://epstopik.hrdkorea.or.kr>)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이고 합격자 결정 기준은 업무별 최저 하한 점수 이상 득점자로서 선발 예정 인원만큼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정하는데 업종별 합격점수는 제조업 200점 만점에 110점, 소수 업종(건설업, 농

6) 산업안전, 직업 관련 내용 포함함.

축산업, 어업) 200점 만점에 80점, 어업 특례 200점 만점에 60점에 준하고 있다.

시험 유형은 고용허가제 일반한국어능력시험⁷⁾과 특별한국어능력능력시험⁸⁾으로 대분하여 시행중이고 시험형태는 종이기반 시험(Paper based Test)과 컴퓨터 기반 시험(Computer based Test)으로 실시되고 있다.

3.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설문조사 분석

3.1. 일반적 특성

필리핀 EPS센터는 2013년부터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종이기반 시험과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실시⁹⁾하고 있다.

본 설문조사는 2021년 10월 13일~11월 12일 특별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2,015명 가운데 300명, 2021년 11월 18일~2022년 4월 22일 일반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11,192명 가운데 211명으로 총 511명 대상 실시하였고 설문분석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으로 분석하였다.

필리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총응시자 511명 가운데 응답자 502명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성별은 남성 82.6%(422명), 여성 15.7%(80명)로 남성이 대다수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30대 75.5%(375명), 20대 23.1%(115명), 기타 1.4%(7명) 순으로 대부분 30대임을 알 수 있다.

7)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자,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는자,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또는 강제출국조치를 당한 경력이 없는자,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는자, 비전문취업취업 및 선원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가 시험 대상임.

8)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근무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취업기간 만료일까지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시험 대상임.

9) 필리핀의 경우 2013년 기준 일반(CBT 3회), 2014년 일반(CBT 1회), 특별(CBT 3회), 2015년 일반(CBT 1회, PBT 1회), 특별(CBT 5회), 2016년 일반(CBT 2회, PBT 1회), 특별(CBT 3회, PBT 1회), 2017년 일반(CBT 1회, PBT 1회), 2018년 일반(CBT 1회, PBT 1회), 특별(CBT 2회), 2019년(일반 CBT 1회, PBT 1회), 2020년 일반(CBT 1회, PBT 1회), 2021년 특별(CBT 1회), 2022년 일반(CBT 8회), 2023년 일반(CBT 6회), 특별(CBT 1회), 2024년 8월 20일 기준 일반(CBT 8회) 실시됨.

학력은 고졸 46.5%(236명), 전문대졸 32.5%(165명), 대학졸 19.1(97명), 중졸 1.6%(8명) 순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혼인 여부에 있어서는 미혼 55.9%(285명), 기혼 42.9%(219명), 기혼·이혼 1.2%(6명)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은 마닐라 외 지역 87.0%(436명), 마닐라 13.0%(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응시자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성 422명	여성 80명	
연령	20~29세 115명	30~39세 375명	기타 연령대 7명	
	학력	중졸 8명	고졸 236명	전문대졸 165명
혼인 여부	미혼 285명	배우자 있음 219명	배우자 없음 6명	
	거주지역	마닐라지역 65명	기타 지역 436명	

응시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전체 업무경력은 4~5년 47%(239명), 5년 이상 32.8%(167명), 3~4년 12.6%(64명), 2~3년 2.6%(13명), 1~2년 2.2%(11명), 1년 이하 1.6%(8명), 경험 없음 1.4%(7명) 순이고, 제조업 경력은 4~5년 56.5%(287명), 5년 이상 19.9%(101명), 3~4년 10%(51명), 없음 5.1%(26명), 2~3년 4.7%(24명), 1년 이하 2.6%(13명), 1~2년 1.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의 주 종사업종으로서 제조업 77.4%(394명), 서비스업 4.3%(22명), 농축산업 3.7%(19명), 건설업 3.1%(16명), 어업 1.8%(9명), 기타 9.6%(49명) 순이고,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관련분야는 제조업 79.2%(397명), 기타 10.2%(51명), 서비스업 5.0%(25명), 건설업 2.8%(14명), 농축산업 2.2%(11명), 어업 0.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시자의 업무 관련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업무 관련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없음	1년이하	1~2년	2~3년	3~4년	4~5년	5년이상
업무 경력	없음	1년이하	1~2년	2~3년	3~4년	4~5년	5년이상
	7명	8명	11명	13명	64명	238명	167명
제조업 경력	없음	1년이하	1-2년	2-3년	3-4년	4-5년	5년이상
	26명	13명	6명	24명	51명	287명	101명
주종사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기타	
	394명	22명	19명	9명	16명	49명	
자격증 분야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기타	
	397명	25명	11명	3명	14명	51명	

3.2. 한국어능력 현황

4개 영역별 한국어 능력 가운데 한국어 듣기 수준은 평균 3.19로 대체로 보통 이상 실력으로 인식하고 있고 빈도별로 살펴보면 보통 49% (248명), 약간 잘함(31.4%(159명), 별로 못함 14.2%(72명), 매우 잘함 3.2%(16명), 전혀 못 함 2.2%(1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말하기 수준은 평균 2.98로 대체로 보통 이하 실력으로 인식하고 있고 빈도별로 살펴보면 보통 51.3%(255명), 별로 못함 23.5% (117명), 약간 잘함 23.1%(115명), 전혀 못 함 1.4%(7명), 매우 잘함 0.6%(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읽기 수준은 평균 3.27로 대체로 보통 이상 실력으로 인식하고 있고 빈도별로 살펴보면 보통 46.4%(232명), 약간 잘함 34.4%(172명), 별로 못함 13.8%(69명), 매우 잘함 4.2%(21명), 전혀 못 함 1.2% (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쓰기 수준은 평균 3.10으로 대체로 보통 이상 실력으로 인식하고 있고 빈도별로 살펴보면 보통 42.4%(213명), 약간 잘함 26.94% (135명), 별로 못함 24.9%(125명), 매우 잘함 4.8%(24명), 전혀 못 함 1.0%(5명) 순으로 나타났다.

4개 영역 한국어능력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4개 영역 한국어능력 현황

구분	빈도				
	전혀 못 함	별로 못함	보통	약간 잘함	매우 잘함
듣기	11명	72명	248명	159명	16명
	전혀 못 함	별로 못함	보통	약간 잘함	매우 잘함
말하기	7명	127명	255명	115명	3명
	전혀 못 함	별로 못함	보통	약간 잘함	매우 잘함
읽기	6명	69명	232명	172명	21명
	전혀 못 함	별로 못함	보통	약간 잘함	매우 잘함
쓰기	5명	125명	213명	135명	24명

3.3. 한국어능력시험 일반적 현황

한국어시험 응시 경험은 평균 2.79회로 나타났는데 빈도별로 살펴보면 2회 32.3%(163명), 1회 30.7%(155명), 3회 18.6%(94명), 없음 11.9%(60명), 4회 5.0%(25명), 5회 1.0%(5명), 6회 이상 0.6%(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습 장소는 학교 54.4%(274명), 온라인 교육 27.8%(140명), 지인 10.3%(52명), 학원 5.8%(29명), 세종학당 1.8%(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내용은 문법 43.1%(218명), 발음과 말하기 24.1%(122명), 단어 등 어휘 21.5%(109명), 작문 등 쓰기 11.3%(5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어 시험 준비기간은 평균 1.62로 9.7개월로 나타났으며 빈도별로 살펴보면 6개월 미만 61.2%(307명), 1년 이하 23.3%(117명), 1~2년 11.8%(59명), 2~3년 1.4%(7명), 3~4년 1.45%(7명), 4년 이상 1.0%(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어려운 영역은 읽기 78.4%(388명), 듣기 21.6%(107명)로 읽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고 시험 측정에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으로서는 읽기 43.2%(210명), 말하기 26.5%(129명), 듣기 23.5%(114명), 쓰기 6.8%(3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어 시험 준비상의 어려움은 교육 기간의 장기화 27.4%(138명), 한국어 습득 어려움 27.4%(138명), 비용 23.0%(116명), 교육기관 접근성 22.2%(112명) 순으로 나타났고, CBT 시험을 치른 경험은 없음 59.7%(289명), 있음 40.3%(195명)로 나타났다.

시험장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34점으로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였고 빈도별로 살펴보면 만족함 33.5%(169명), 매우 만족함 25.9%(131명), 매우 불편함 23.0%(116명), 보통 12.7%(64명), 조금 불편함 5.0%(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험 결과 발표 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65점으로 대체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빈도별로 살펴보면 만족함 43.1%(211명), 적당함 36.5%(179명), 매우 만족함 14.5%(71명), 조금 늦음 4.7%(23명), 매우 늦음 1.2%(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시 비용에 대한 견해는 평균 2.98점으로 대체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였고 빈도별로 살펴보면 적당함 67.9%(336명), 조금 비쌌 15.4%(76명), 저렴함 13.3%(66명), 매우 비쌌 1.8%(9명), 매우 저렴함 1.6%(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서는 취업 87.9%(442명), 한국문화 습득 12.1%(61명)로 취업이 주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입국 후 한국어 습득 의향은 있음 96.6%(483명), 아직 모르겠음 3.2%(16명), 없음 0.2%(1명)으로 학습 의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시험 일반적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한국어능력시험 일반적 현황

구분	빈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한국어 응시 경험	155명	163명	94명	25명	5명	3명
한국어 학습 장소	학교	온라인 교육	지인	학원	세종 학당	
	274명	140명	52명	29명	9명	

구분	빈도					
	문법	발음·말하기	단어 등 어휘	작문 등 쓰기		
학습 시 어려운 내용	218명	122명	109명	57명		
시험 준비 기간	6개월 미만	1년 이하	1~2년	2~3년	3~4년	4년 이상
	307명	117명	59명	7명	7명	5명
어려운 영역	읽기	듣기				
	388명	107명				
시험측정시 강화요구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210명	129명	114명	33명		
시험준비상 어려움	교육기간 장기화	한국어습득어려움	비용	교육기관 접근성		
	138명	138명	116명	112명		
CBT 시험 치룬 경험	없음	있음				
	289명	195명				
시험장 만족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	조금 불편함	많이 불편함	
	131명	169명	64명	25명	116명	
결과발표 기간만족도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	조금 늦음	많이 늦음	
	71명	211명	179명	23명	6명	
응시비용	매우 저렴함	저렴함	적당함	조금 비쌌	매우 비쌌	
	8명	66명	336명	76명	9명	
한국어관심계기	취업	한국문화 습득				
	442명	61명				
입국후 한국어습득	있음	아직 모르겠음	없음			
	483명	16명	1명			

4.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발전방안

4.1. 필리핀 내 세종학당 증설

세종학당은 한국어·한국문화 수요 증가 및 한국어·한국문화의 국제 저변 확대를 통해 국가 위상 제고,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88개국 265개¹⁰⁾가 지정되어 아시아지역에는 151개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고 151개 세종학당은 베트남 22개, 중국 20개, 일본 16개 순이며 필리핀의 경우 8개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다. 세종학당은 일반 세종학당, 문화원, 교육원, 거점 형태로 구분되고 필리핀에는 일반 세종학당 7개, 문화원 세종학당 1개가 운영되고 있다.

7개의 일반 세종학당은 까인파 세종학당(Rizal), 발랑가시티 세종학당(Baraan), 산후안 세종학당(Batangas), 세부 세종학당(Cebu), 일로일로 세종학당(Iloilo), 케손시티(Quezon), 케손시티2 세종학당(Quezon) 등이고 문화원 형태의 1개의 세종학당은 필리핀 한국문화원 세종학당(Taguig)이다(세종학당재단).

필리핀의 세종학당이 도심에 있다는 점과 소수 기관이 개소된 점에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세종학당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어 학습 장소로서도 학교 54.4%(274명), 온라인 교육 27.8%(140명), 지인 10.3%(52명), 학원 5.8%(29명), 세종학당 1.8%(9명) 순으로 세종학당을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시험 준비상의 어려움은 교육 기간의 장기화 27.4%(138명), 한국어 습득 어려움 27.4%(138명), 비용 23.0%(116명), 교육기관 접근성 22.2%(112명)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 국가별 20개 이상의 세종학당이 개소된 점을 제고하여 필리핀 마닐라 외의 지역에 세종학당의

10) 아세아 151개, 유럽 60개, 아메리카 34개, 아프리카 14개, 오세아니아 5개임.

증설이 요구된다.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지역이 마닐라 외 지역 87%(436명)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 지역 외에 세종학당의 증설이 요구되고 학습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제고가 요구된다.

4.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계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입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는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 심사 강화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에 대한 요건 가운데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가 활용되고 있다(강현주·이경·류선숙, 2020: 50). 현행 외국인 대상 실시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법무부 주관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KIIP-KLCT)¹¹⁾ 등이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계되지 않고 시행되는 반면에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계를 하고 있는데 연계 과정은 <표 7>과 같다.

<표 7>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평가표

TOPIK 등급	1급	2급	3급	4~6급
배정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출처: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https://www.socinet.go.kr>).

연계 평가 신청은 한국어능력시험 연계 평가 신청자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으로 해당 단계를 배정받게 되는데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이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계

1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orea Language and Culture Test).

될 경우 연계 평가 신청자가 필리핀 등 해당국 EPS센터의 신청 절차를 통하여 구직명부에 기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의 접근성, 한국어능력시험 준비의 효율성, 한국어교재 개발의 전문화, 한국 입국 후 사회통합프로그램과의 연계성 등을 제고하여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4.3. 구술 평가 도입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의 출제는 읽기와 듣기시험으로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대상 영역별 한국어능력에 대한 설문 결과 읽기(3.27점), 듣기(3.19점), 쓰기(3.10점)에 비하여 말하기 수준은 2.98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말하기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500명 가운데 보통 51.3%(255명), 별로 못함 23.5%(117명), 약간 잘함 23.1%(115명), 전혀 못함 1.4%(7명), 매우 잘함 0.6%(3명) 순으로 매우 잘함 0.6%(3명)를 제외하고 보통 이하 99.4%(4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목적은 외국인 구직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여 구직자 명부 작성 시 객관적 선발기준으로 활용하고 한국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춘 자의 입국을 유도하여 한국 생활에서의 적응력을 도모하는 데 있다. 평가 내용에 한국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 산업현장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 등임을 알 수 있는데 한국어능력시험의 구성표는 <표 8>과 같다.

<표 8> 한국어능력시험 구성표

구분	평가영역	문항 수	배점	시간
읽기	어휘 어법, 실용자료 정보, 독해	20	100	25분
듣기	소리표기, 시각자료, 대화나 이야기	20	100	25분
총계		40	200	50분

출처: EPS-TOPIK 홈페이지(<https://epstopik.hrdkorea.or.kr>)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말하기 시험이 부재하여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생활에서의 적응력 도모라는 시행목적에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구직자 명부에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한국 생활에서의 소통부재에 따른 어려움, 작업장에서의 능률, 산업재해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한국어 구술시험의 도입이 요구되고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온라인 채용 면접 방식 시범 도입도 유의미할 것이다.

4.4. 한국 입국 후 한국어교육 지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본국에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어 등 16시간의 입국 및 취업교육¹²⁾을 받지만, 직장에서의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를 겪게 되므로 작업한국어 습득과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한국어교육이 요구된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 입국 후 한국어 습득 의사에 관한 설문 결과 의사 있음 96.6%(483명), 아직 모르겠음 3.2%(16명), 없음 0.2%(1명)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 기관 안내가 요구되는데 첫째,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소양 즉,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교육인 점에서 외국인근로자 특히, 전문인력 혹은 영주자격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 안내가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력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2023년에 시범 도입된 바와 같이 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산업현장 밀착형 “찾아가는 사회통합교육” 지원 연계가 요구된다(이성순, 2024: 207).

둘째, 2024년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직무능력 및 사업장 적응력 제고를

12) 취업교육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 등으로 구성되고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국내 적응 지원을 목적으로함.

위한 위탁훈련기관 모집¹³⁾을 통하여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훈련기관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주말교육으로 진행되는 점에서 입국후 취업교육 시 한국어교육 지원 안내가 요구된다.

4.5. 다양한 부교재 개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사전에 문제 풀(Pool)을 공개하고 그 범주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였으나 시험문제의 변별성과 한국어능력 우수자 선발을 위해 2013년부터 전면 비공개 문제 출제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학습 방향 제시와 한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한국어표준교재(Textbook for EPS-TOPIK)가 발간되었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점에 관한 질문에서 문법 43.1%(218명), 발음과 말하기 24.1%(122명), 단어 등 어휘 21.5%(109명), 작문 등 쓰기 11.3%(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한국어표준교재를 활용한 워크북이나 어휘집 등 다양한 자가 학습용¹⁴⁾ 부교재 개발이 요구된다.

4.6. CBT 시험장 인프라 개선

외국인근로자 대상 CBT 시험을 치른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CBT 시험 치른 경험 없음 59.7%(289명), 있음 40.3%(195명)로 나타났고 시험장에 대해서는 만족함 33.5%(169명), 매우 만족함 25.9%(131명), 매우 불편함 23.0%(116명), 보통 12.7%(64명), 조금 불편함 5.0%(25명) 순으로 보통 이하 응답자가 총응답자 505명 가운데 205명(40.7%)인 것으로 나타났다.

13) 서울남부지사, 부산지부, 경남지사, 대구지부, 경인지부, 인천지사, 경기북부지사, 경기도부지사, 광주지부, 대전지부별 각 200명 모집으로 목표 인원으로 2,000명을 함.

14) 참고서의 기능, 익힘책의 기능, 문제집의 기능을 말함(김선정, 2015: 7).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외국인근로자 25%가 듣기 시험에서 잘 들리지 않았다는 응답(정호진, 2013b: 120)을 제고하여 CBT 시험장에 대한 일반적 시설 점검과 듣기시험 평가에 적합한 시설인 지 등에 대한 점검 등이 요구되고 CBT 시험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프라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5. 나가는 말

본 논문은 한국 입국 전 필리핀에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의 일반적 특성, 한국어능력 현황, 한국어능력시험의 일반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의 발전방안과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입국 후 한국어교육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 내 세종학당의 증설이 요구된다. 필리핀의 세종학당이 도심에 있다는 점과 8개 세종학당만이 개소된 점에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세종학당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다.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학습 장소는 학교 54.4%(274명), 온라인 교육 27.8%(140명), 지인 10.3%(52명), 학원 5.8%(29명), 세종학당 1.8%(9명) 순으로 세종학당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고, 한국어 시험 준비상의 어려움의 경우 교육 기간의 장기화 27.4%(138명), 한국어 습득 어려움 27.4%(138명), 비용 23.0%(116명), 교육기관 접근성 22.2%(112명) 순인 점을 제고하여 세종학당 증설이 요구되고 학습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는 평가이다. 외국

인의 한국어교육의 접근성, 한국어능력시험 준비의 효율성, 한국어교재 개발의 전문화, 한국 입국 후 사회통합프로그램과의 연계성 등을 제고하여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계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볼 때 체류자격을 변경과 정주화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있어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이 효율적인 평가지표가 될 것이다.

셋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구술 평가 도입이 요구된다.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의 출제는 읽기와 듣기시험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의 영역별 한국어 능력을 설문한 결과 읽기(3.27점), 듣기(3.19점), 쓰기(3.10점)에 반해 말하기 수준은 2.98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말하기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500명 가운데 보통 51.3%(255명), 별로 못함 23.5%(117명), 약간 잘함 23.1%(115명), 전혀 못함 1.4%(7명), 매우 잘함 0.6%(3명) 순으로 매우 잘함 0.6%(3명)를 제외하고 보통 이하 99.4%(497명)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특수목적의 한국어 습득 대상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은 작업장에서의 능률과 산업재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한국어 구술시험이 도입이 요구되고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온라인 채용 면접 방식 시범 도입도 유의미할 것이다.

넷째, 한국 입국 후 한국어교육 연계가 요구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본국에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하고 한국에 입국하지만, 직장에서의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를 겪게 되므로 작업 한국어 습득과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한국어교육이 요구된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 입국 후 한국어 습득 의사에 관한 질문 결과 의사 있음 96.6%(483명), 아직 모르겠음 3.2%(16명), 없음 0.2%(1명)로 한국어 학습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직무능력 및 사업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위탁훈련기관 모집¹⁵⁾을 통하여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대상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평일 외 주말 교육, 화상교육으로도 진행되는 점에서 양 기관의 교육에 대한 안내 및 연계가 요구된다.

다섯째, 다양한 부교재 개발이 요구된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사전에 문제 풀(Pool)을 공개하고 그 범주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였으나 시험문제의 변별성과 한국어능력 우수자 선발을 위해 2013년부터 전면 비공개 문제 출제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학습 방향 제시와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표준교재(Textbook for EPS-TOPIK)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학습시 일반적 어려운 점을 설문한 결과 문법 43.1%(218명), 발음과 말하기 24.1%(122명), 단어 등 어휘 21.5%(109명), 작문 등 쓰기 11.3%(5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한국어 표준교재를 활용한 워크북이나 어휘집 등 다양한 자가 학습용 부교재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CBT 시험장 인프라 개선이 요구된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CBT 시험 치른 경험을 질문한 결과 CBT 시험 치른 경험 없음 59.7%(289명), 있음 40.3%(195명)로 나타났고 시험장에 대해서는 만족함 33.5%(169명), 매우 만족함 25.9%(131명), 매우 불편함 23.0%(116명), 보통 12.7%(64명), 조금 불편함 5.0%(25명) 순으로 보통 이하 응답자가 총응답자 505명 가운데 205명(40.7%)이다. 이점에서 CBT 시험장에 대한 일반적 시설 점검, 듣기시험 평가에 적합한 시설인 지 등에 대한 점검 등이 요구되고 CBT 시험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프라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서 필리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현황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나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비교, 필리핀 외 국가의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과 필리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비교,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질적연구 등의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15) 서울남부지사, 부산지부, 경남지사, 대구지부, 경인지부, 인천지사, 경기북부지사, 경기동부지사, 광주지부, 대전지부별 각 200명 모집으로 목표 인원으로 2,000명을 함.

참고문헌

- 강현주 · 이경 · 류선숙(2020). 결혼이민자를 위한 입국 전 한국어능력시험 개발연구: 세종학당 학습자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6(2), 49-81쪽.
- 김경국(2022). 고용허가제 TOPIK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광(2011). 국내외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대안: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200-225쪽.
- 김명광(2023). EPS-TOPIK 기능과 효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20(1), 61-88쪽.
- 김선정(2015). 해외 현지 자가 학습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언어와 문화> 11(3), 1-22쪽.
- 김유정(2008).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의 현황과 과제: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3개국 시험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8, 95-122쪽.
- 김태은(2023).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와 EPS TOPIK 읽기 공개 문제의 연계성 검토 및 개선 방안 연구, <문화와 융합> 45(9), 1-11쪽.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24). 2023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이미혜(2016).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화와 융합> 38(5), 461-486쪽.
- 이성순(2023).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양서원.
- 이성순(2024). 대전지역 외국인주민 지원현황과 과제, <다문화콘텐츠연구> 47, 183-211쪽.
- 전용일 · 백희정(201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선발제도 다각화에 관한 고찰, <국제지역연구> 23(4), 249-266쪽.
- 정호진(2013a). EPS-TOPIK 시행 현황 및 관계자 요구 분석, <비교문화연구> 31, 395-414쪽.
- 정호진(2013b). 설문조사를 통해 본 EPS-TOPIK 발전 방안, <교육문화연구> 19(2), 99-129쪽.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사회통합정보망(<https://www.socinet.go.kr>).
- 세종학당재단(<https://www.ksif.or.kr>).
-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s://www.hrdkorea.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https://hrdc.hrdkorea.or.kr>).
- EPS-TOPIK(<https://epstopik.hrdkorea.or.kr>).

필자 소개

성 명 이성순
소 속 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 창의교양학부
주 소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A405호
전자우편 sslee@mokwon.ac.kr

성 명 김연홍
소 속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주 소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자우편 awaken74@nate.com

Abstract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 Focusing on a Survey of Applicants for the Philippine Employment Permit System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

Lee, Sung-soon · Kim, Yeon-hong

(Mokwon University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This paper aims to derive ways to improve the EPS-TOPIK through a survey of 511 foreign workers in the Philippines who took the EPS-TOPIK.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Sejong Institutes in the Philippines should increase; second, the EPS-TOPIK should be linked to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third, the EPS-TOPIK should introduce an oral exam; fourth,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linked to foreign workers after they enter Korea; fifth, the development of various supplementary teaching materials for self-study should be required; and lastly, the improvement of CBT testing site infrastructure should be implemented.

|Key words| Employment Permit System,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EPS-TOPIK

투고일 2024. 09. 06 / 심사일 2024. 11. 19 / 게재확정일 2024. 11. 24

www.kci.go.kr